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 2024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pp.54~90.
http://dx.doi.org/10.17321/rnks.2024.27.1.002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이무철**

본 연구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남한과는 더 이상 통일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에 우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체계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어떤 논리와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규정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김일성 민족과 사회주의 조선(국가)의 일체화를 완성하고,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식 ‘평화공존론’을 정립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완성, 나아가 김정은 사상의 체계화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본다.

주제어: 대남·통일정책,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민족끼리, 선평화 후통일, 평화공존론, 김정은 사상

* 논문에 대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으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말 제8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하고,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1]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 1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남기구 폐지,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과 함께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등의 낱말 사용 금지 및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 강화 명기, '북반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등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하게 물리적으로 완전 단절,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을 지시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2]

북한은 분단 이후의 남북관계 역사에 대한 나름의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남·대적 투쟁원칙에 입각한 공세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31일.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16일.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시정연설을 했다.

적인 대남·통일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은 남북한의 특수관계[3]를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인 두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하고, 보수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흡수통일)을 추구하는 남한과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할 것임을 주장했다.[4]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은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한 가운데, 2019년 12월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남대적사업 전환 검토 등을 제기하면서 대남 강경노선을 유지해 나갔다. 그리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 입각한 대남전략과 기조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는 남한의 대북·통일정책을 '동족대결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대남대적정신'을 더욱 강조했다. 북한은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에서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 협상 실패 이후 내부적으로 한반도 및 남북관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대남·통일정책을 마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은 나름의 예고되었던 변화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의미와 특성 등을 북

3) 남북한은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4)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31일.

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5]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우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체계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어떤 논리와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 규정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김일성 민족과 사회주의 조선(국가)의 일체화를 완성하고,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식 '평화공존론'을 정립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완성, 나아가 김정은 사상의 체계화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본다.

---

5)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는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8~38쪽;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2019), 309~345쪽;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7월호, 30~38쪽; 전영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2호(2021), 161~188쪽;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2021), 139~177쪽 등 참조.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둘러싼 국내 논의의 핵심 쟁점은 북한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민족보다 국가를 우선(대체 또는 계승)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일과의 관계 등이다. 그런데 통일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에서 '우리 민족끼리(남한)'를 제외하면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 사이의 논리적 모순이 제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번 대북·통일정책 전환을 통해 북한이 민족과 국가의 일체화(우리 민족제일주의=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완성한 것으로 본다.

2.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과 체계화

1)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용어는 2017년 11월 20일『로동신문』에 처음 등장했다. 신문은 정론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인민의 '자력갱생'과 '자강력제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주체철, 탄소하나화학공업, 군수공업, 경공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를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근거로 제시했다.[6] 이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이후,『로동신문』은 30일 사설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또다시 거론했다.[7] 2018년에는『조선여성』[8],『근로자』등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과 뼈대를 제시했다.[9] 그리

6) 신문은 "창조와 행복의 모든 열매들은 다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눈부신 실천으로 구현해오신 그이(김정은)의 위대한 손길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수령제일주의와 연결하고 있다. "정론,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나가자,"『로동신문』, 2017년 11월 20일.

7)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8) "우리 국가제일주의,"『조선여성』, 제2호(2018);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조선여성』, 제6호(2018);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 요구,"『조선여성』, 제7호(2018) 등을 참조.

9) 정영철은『근로자』에 실린 글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과 뼈대가 완성된 것으로 분석했다.『근로자』편집부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위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사회주의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편집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자,"『근로자』, 제5호(2018);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

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10]할 것을 공식 언급한 이후, 북한은 대대적인 사상교양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기초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애국주의”[11]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12] 그리고 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서로 뗄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고 사회전반에 드높은 애국열, 투쟁열, 창조열이 차넘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천하제일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위력한 보검”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13]

이어 신문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직접적인 주체인 인민들을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이에 맞는 국풍” 확립을 주문했다. 신문은 “국풍에는 사람들이 자기 국가를 대하는 태도, 매 인간들의 인생관, 생활관이 반영”된다면서, 국풍 확립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사이며 국풍이 바로 선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풍 확립을 위해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

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24쪽에서 재인용.

10)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11) 김용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로동신문』, 2019년 1월 20일.

12) 김성남,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13)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로동신문』, 2019년 1월 21일.

게 대하고, “국가의 법률을 절대 존중하는 준법 기풍”을 확립하며, “국화와 국수, 국조, 국전과 같은 나라(북한)의 상징들을 적극 애호하고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전체 인민에게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강력한 정치사상적 무기로 틀어쥐고, “공화국(북한)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갈 것을 독려하고자 했다.[14]

북한은 국가제일주의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성과를 내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높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인민만이 가질 수 있는 사상 감정이라고 밝히고, 오늘날 세계에서 북한만이 이런 성과를 내고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부강조국 건설에서 이룩한 괄목할 성과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면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이다. 신문은 북한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뿐 아니라 이민위천의 이념과 가장 우월한 인민적 시책이 구현되고 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둘째,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신문은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 된 나라,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실현된 나라는 우리나라(북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라는 것이다. 신문은 제국주의의 집중적인 압살 공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앞길을 개척해 왔으며, 가중되는 제재 봉쇄를 자강력 증대의 기회로 반전시키며 남들이 걸어온 수 세기를 도약하며 현재의 강대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넷째, ‘계승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

14) 위의 신문.

〈표 1〉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주요 내용 및 논리체계

목표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 (우리 국가제일주의 완성)
주요 과제	- 선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의 계승 및 강화 -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 사회주의 경제건설 - 과학기술과 문화의 비약적 발전
주요 내용 (성과)	-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 -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 -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한 나라 - 계승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라
본질적 내용	-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 국가의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 세우는 강력한 의지
사상정신적 기초	주체사상과 김정일 애국주의

자료: 저자 작성.

라'라는 것이다. 신문은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의 계승 문제는 관건적이면서도 해결하기 힘은 문제"인데, "우리 공화국은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계승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왔다"라고 밝혔다. 즉, 영도의 계승 문제와 혁명전통 계승 문제를 해결한 북한이 제일이라는 논리이다.[15]

그리고 『로동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첫째, 선대 수령(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업적의 계승 및 강화, 둘째,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셋째, 사회주의 경제건설, 넷째, 과학기술과 문화의 비약적 발전 등을 제시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김일성, 김정일 조선제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16] 즉, 북한은 선대 수령의 사상과

15) 명주혁,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로동신문』, 2019년 1월 22일.

업적(우리 국가제일주의)을 바탕으로 현재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이 혼연일체로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북한의 가장 절박한 당면과제인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및 문화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을 건설한다면 사회주의 강성국가, 부강조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북한은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체제 건설과 국가의 핵 무력을 완성한 성과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김정은의 업적 찬양과 충성심 강화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당면과제는 권력승계의 정당성 확보와 함께 당·국가체제의 정상화 및 인민생활 향상 등이었다.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중심의 정치방식과 김정일애국주의를 내세웠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더욱 강력한 제재로 맞섬에 따라 인민들에게 자력갱생과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했다.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하고, 경제·핵 병진 노선을 통해 핵 무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립경제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위상 강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인민에게 심어 주고자 했다. 또한 지금처럼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단결만 한다면 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회주의 부강조국을 건설할 수

16) 유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북한은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 이후 자신이 추구하는 전략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담론으로 바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2)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체계화: 국가 정체성 강화 및 시대정신 규정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신념화를 제기한 후, 북한은 인민대중을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해 내용의 체계화 작업 및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북한은 사상교양사업에 국가상징을 활용한 국풍 확립을 강조했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2019년 1월 한 달에만 논설, 사설 등 8건의 기사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17] 그리고 신문의 국가상징 소개는 2018년 11월부터 국수 소나무, 국견 풍산개, 국조 참매, 국화 목란꽃 등을 알리는 글로 시작됐다.[18] 이어 신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17) 8건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김성남,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최후승리 앞당겨오리," 『로동신문』, 2019년 1월 16일; "사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자," 『로동신문』, 2019년 1월 17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떨치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 『로동신문』, 2019년 1월 18일; 김용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로동신문』, 2019년 1월 20일;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로동신문』, 2019년 1월 21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로동신문』, 2019년 1월 22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18) "민족이 억센 기상의 국수 소나무(1)," 『로동신문』, 2018년 11월 11일; "민족이 억센 기상의 국수 소나무(2)," 『로동신문』, 2018년 11월 18일; "민족의 자랑

국가제일주의를 공식 언급한 김정은의 신년사와 함께 '우리의 국기' 악보와 가사, 그리고 "노래가 대단히 좋다. 전체 인민의 감정이 담긴 훌륭한 노래를 창작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김정은의 친필을 함께 게재했다.[19] 신문은 계속해서 국호, 국장, 국가, 국어 등의 국가상징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20] 북한은 인민에게 '사회주의 조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심어 주는 데 있어 국가상징에 대한 상식을 알려 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교양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1]

이러한 우리 국가제일주의 강조는 문화공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건국 70주년 기념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를 공연했다. 과거에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처럼 당을 주제로 한 공연이 이루어졌고, 2002년부터는 민족적 색채를 드러내는 '아리랑'을 주제로 공연했다. 〈아리랑〉은 2015년까지 공연이 되었고, 이후부터는 조국, 국가를 주제로 내세우기 시작했다.[22]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기' 게양식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국가 위에 당이 군림하

조선의 국견-풍산개(1)," 『로동신문』, 2018년 11월 25일;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풍산개(2)," 『로동신문』, 2018년 12월 2일; "민족의 슬기와 용맹한 기상이 어린 조선의 국조-참매," 『로동신문』, 2018년 12월 9일;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조선의 국화-목란꽃," 『로동신문』, 2018년 12월 23일.

19) "우리의 국기,"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20) "우리의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2019년 1월 23일; "밝고 아름다우면서도 뜻이 깊은 국장," 『로동신문』, 2019년 1월 26일; "송고한 조국애를 깊이 심어주는 ≪애국가≫," 『로동신문』, 2019년 2월 2일; "세상에 자랑높은 우리의 국어," 『로동신문』, 2019년 2월 4일.

21)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의 중요성," 『로동신문』, 2018년 11월 18일.

22)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 32쪽.

는 북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 당 창건일에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3]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제일인 근거, 다른 하나는 이러한 북한을 더욱더 빛내기 위한 과제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바탕으로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사상, 정치, 군사강국을 건설한 것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근거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제강국, 과학강국, 문명강국 건설 등을 주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북한이라는 조국,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동시에 애국심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의 선봉에 서도록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강화해 나가고자 했다.

나아가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선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 이후 지난 5년간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 놓았다고 주장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라고 규정했다.[24] 북한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존과 번영이다. 수령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존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핵무력 완성 등이 자존의 기반이고, 자립적 민족경제

23)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560쪽.

24)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9일.

건설과 이를 위한 자력갱생 정신과 자강력 제일주의 등이 번영의 동력이 되고 있다. 즉,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 시대', 김정일의 '선군 시대'처럼 김정은 시대를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로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를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로 규정한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제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찬양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2022년 9월 7일 공화국 창건 74돌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국가와 위대한 인민을 탄생시킨다"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제일주의라는 엄숙한 운명의 진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나열하면서 "위대한 수령께서 계시여 위대한 국가도 있고 위대한 인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수령의 위대성'을 "온 넋으로 절감하고 따사로운 그 정에 매혹되어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 따르는 인민, 진짜 강국은 바로 위대한 수령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천만이 일심 일체의 성새를 이룬 나라"라고 주장했다.[25]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로 선언하고, 당 규약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근거한 김정은의 '애민정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김정은 시대)를 이끌어 갈 김정은의 정치방식, 비전과 목표 등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이번 대남·통일정책 전환으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25)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인민이 온넋으로 받드는 강국의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 『로동신문』, 2022년 9월 7일.

〈표 2〉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김정은 사상체계

국가목표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 (우리 국가(민족)제일주의 완성)
주요 과제	사회주의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 건설
주요 동력	자강력 제일주의
기본 정치방식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사상정신적 기초	김일성·김정일주의 (수령제일주의)

주: 이 표는 북한이 김정은 사상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한 김정은 사상체계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계승과 발전을 담보하고, 선대 수령의 시대와 구별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영도할 김정은 사상(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수령제일주의의 결합)의 체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을 통해 우리 국가(민족)제일주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방식으로 당과 대중을 수령의 두리(우리 수령제일주의)에 뭉치게 하고, 인민대중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지도이념인 김정은 사상의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표 2〉 참조).

3.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1) 김일성 민족과 사회주의 조선(국가)의 일체화: '우리민족끼리' 삭제

북한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김정일이 1986년에 공식 언급한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했다.[26] 당시 중국의 개혁개방(1978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1985년) 등을 계기로 사회주의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급기야 1989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다른 사회주의 민족이나 국가와 북한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담론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27]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의하는 민족 개념은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북한은 '계급'보다 '핏줄'을 강조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민족 및 국가와는 핏줄과 혈통이 달라 붕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민족이 제일인 이유를

---

26)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56쪽. 이후 북한은 민족의 징표로 핏줄과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당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대한 설명은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평양: 평양출판사, 1989) 참조.

27)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1989년 말에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한다.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12.2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48~273쪽.

수령의 지도와 연결했으며,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북한 인민을 '김일성 민족', '태양 민족' 등으로 표현했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 북한은 대남·통일 차원에서 '민족대단결'을 강조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했다.[28] 북한의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대내적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결속을 통한 체제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사회주의 조선 민족, 김일성 민족 등을 강조하고, 대남·통일 정책 차원에서는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포함한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하는 이중구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29]

그런데 이중구조를 가진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김정은 정권이 강조한 사회주의 조선 민족(김일성 민족)만으로 구성된 북한의 부강 조국 건설을 강조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논리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점차 민족보다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확립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물

---

28) 2000년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에 대해서는 송국현, 『우리 민족끼리』(평양: 평양출판사, 2002);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엄국현,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평양: 평양출판사, 2007) 등 참조.

29) 일부 연구에서는 북한이 대내적 차원을 강조할 때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대남 차원에서는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139~177쪽. 그러나 북한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이러한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김정일의 담화, 연설에서 김정일은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담화, 연설의 말미에는 민족의 통일문제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평양출판사에서 발간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 등에서도 우리 민족이 제일인 이유를 위대한 수령의 존재와 연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 민족(북한)을 중심으로 한 민족 공조와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다.

론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계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30]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일성 민족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시대의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남·통일 차원에서 강조한 '우리민족끼리' 개념은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다.[31] 어떻게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김정일 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인민대중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족과 국가를 일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신념화를 강조했던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의 남북관계 변화는 '우리 민족끼리' 합심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 주었다고 평가하고, 온 겨레는 한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2]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을 반영하여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나아가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방안 논의를 주장했다. 북한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의 정체성 강화를 바탕으로 체제

30)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승화발전," 『민주조선』, 2019년 3월 26일.

31) 물론 김정은 집권 당시 남북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볼 때, 선대 수령들과 비교했을 때, 민족과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32)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재건설을 위한 동원 담론으로 정립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8년 남북관계 변화는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다시 강조하게 만들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가제일주의의 신념화와 함께 평화적 통일 논의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와 달리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북한은 모든 대화를 중단한 가운데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갔다. 2019년 12월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아래의 대남 및 대외노선에 따라 남한에 남북 합의 사항 준수 및 이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2020년 6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대적 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등의 강경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의 교착과 대립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다면서, 당 규약 서문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삭제하고 당원 임무 중 '조국통일 투쟁'을 삭제했다. 물론 북한은 당 규약 서문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삭제했지만 조국의 평화통일은 그대로 명시했다.[33] 그러나 북한은 기존 당

33) 북한은 기존 당 규약 서문의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를, 제8차 당대회에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규약과 달리 우선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 수호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당시 당대회에서 확립된 북한의 대남·통일 전략 기조는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아래 '조건부 관계 개선'[34]과 '선평화 후통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 합의 사항을 북한이 먼저 파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3번의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정부를 고려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남북 합의 사항 이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남한이 이를 충족할 시 남북대화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남북한을 동족 또는 특수관계를 보지 않고 국가 간 관계로 보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7월 전승 69돌(휴전협정일) 기념 연설에서 "올해에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 ≪정권≫은 력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릉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 대결정책과 사대 매국 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권과 군대를 다시금 ≪주적≫으로 규정해놓고 동족 대결 상황을 대비한다는 쓸데없는 겁에 질러 악청을 돋구고 온갖 몹쓸 짓,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이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개정했다.

34) 홍민 외,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KINU Insight 2021 No.1), 통일연구원, 2021.2., 27~29쪽.

‘동족 대결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 대 강 원칙 아래 대남 대적 정책으로 전환했다.[35] 또한 “가장 위험한 도마우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앞에 로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보다 숙고하고 입보다 머리를 더 굴러야 하며 때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에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36] 김여정도 2022년 8월 18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주장했다.[37]

결국 북한은 제8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남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동족, 화해,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시 말해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민족’ 자체를 부정하고 남북한을 별개의 민족,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일성 민족과 사회주의 조선(국가)의 일체화를 확립했다. 즉, ‘우리 민족제일주의=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등식을 완성한 것이다.

---

35) 김정은은 전승 69돌 기념 연설에서 “더 강해지는 철저한 군사력과 투철한 반제반미, 대남·대적 정신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 우리의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22년 7월 27일.

36) 위의 통신.

37) 김여정 담화,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22년 8월 19일.

2) 특수관계에서 국가 간 관계로의 전환: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의 폐기

1945년 해방 이후 한민족의 과제는 자주독립의 근대국가 건설이었다. 그러나 한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된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참혹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이후 남북한은 냉전이라는 조건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치열한 체제 및 정권의 정통성 경쟁[38]을 펼쳤고,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국가를 추구했다. 남북 양측에게 통일은 자주독립의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의 완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 이후 남북한은 우선 각자의 지역에서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를 건설해 나갔다. 남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합의했으나, 자신의 이념과 체제 중심으로 3대 원칙을 해석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중심으로 건설한 국가를 확장하는 방식의 통일국가를 추구해 나갔다.

이후 남북한은 탈냉전적 상황에서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 당시 북한은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이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은 탈냉전적 상황에서 남한이 중국,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비동맹국의 협조를 얻어내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우려하고 동시 가입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를 통해 남북 양측은 각기 독립된 국가의 자격으로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남북한은 1991년 12월에 합의한 남북기본

38)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기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자신이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괴뢰 집단'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개별 국가로 인정받게 됐지만, 남북 양측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관계가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후 남북한은 공식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폐기하고 국가 간 관계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 노선과 방안(연방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민주 또는 보수 정권이든 모두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규정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39]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남북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

39)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31일.

문하면서 민족의 역사에서 동족, 화해, 통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은 반세기 이상 남북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으며, 이것의 모든 책임은 미국의 '식민지 속국'에 불과한 남한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남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전 중인 적대 국가 간 관계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유사시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포기하고 "무력 통일" 노선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자신의 군사력 증강을 교전 중인 적대 국가 간 관계인 현재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도발을 해 온다면 자신의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결판을 내겠다는 것이다.[40] 다시 말해 북한은 과거처럼 명분상이든 실질적이든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지만, 남한이 무력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를 제압하고 남한 지역을 자신의 영토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다.[41]

---

40)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16일.

41)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

분단의 역사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기는 갈등과 대립의 시기보다 짧다. 길지 않은 대화와 협력의 시기에도 남북한은 상대방이 자기 체제와 이념 중심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그동안 무력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 아래, 명분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적 통일 등을 강조해 왔다. 물론 갈등과 대립의 시기이든 대화와 협력의 시기이든 남북한은 모두 상대방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이에 대해 철저히 응징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의 측면과 특수관계 측면이 함께 작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관계의 역사를 볼 때, 남한이 흡수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동족 대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이 통일을 최대 과제로 설정했던 것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한민족의 근대국가 완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민족' 자체를 부정하고 남북한을 서로 다른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통일의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통일을 매개로 형성된 남북한의 특수관계는 사라지고 국가 간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은 모두 상대방의 정권과 주민을 구분해 상대 정권은 괴뢰 집단, 주민은 그 괴뢰 집단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우리의 동족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젠 남한이 동족이 아닌 적대 국가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무력도발 시 힘으로 제압하여 남한 인민의 해방이 아닌 남한을 자신의 공화국으로 편입하여 북한의 영토를 확장하겠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라고 밝혔다. 위의 통신.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입장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은 적대 국가 간의 화해와 공존을 위한 외교적 관계 수립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이전의 적대적인 남북관계에서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강조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상대방의 무력 도발에는 압도적 힘을 사용해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안보 우선의 대남정책: 북한식 '평화공존론' 추구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수령의 조국통일 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흡수통일과 군사적 대결을 획책하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더 이상 통일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통일에 대한 언급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의 통일정책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 전환은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정책을 삭제한 대남정책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를 별개의 민족과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통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됐다. 결국 김일성 민족, 사회주의 조선(국가)의 일체화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비전과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외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적대적 공존'을 유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의 특수관계를 폐기하고 교전 중인 적대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핵 무력에 의한 평화 추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북한은 핵 무력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이 자신의 안보 및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이다. 현재 남북의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 평화적 통일 논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체제 생존을 위한 안보와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무력도발 의사가 없지만, 상대방인 남한이 무력도발을 해 온다면 이에 맞선 보복과 응징을 통해 남한 지역을 북한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변화된 북한의 대남정책은 우선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 핵 무력을 통해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향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하여 적대적 공존에서 중립적 공존 또는 협력적(평화적) 공존 관계로의 전환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은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북한식 '평화공존론'의 정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존방식은 적대적 공존(hostile coexistence), 중립적 공존(neutral coexistence), 협력적 공존(cooperative coexistence)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적대적 공존은 상대와 공존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존을 허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중립적 공존은 상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적대할 이유도 서로 협력할 이유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협력적 공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서로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진 상태의 공존을 의미한다.[42] 분단과 전쟁 이후 남북은

42)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서울: 나남, 1995), 384쪽.

70여 년 동안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 오면서 간헐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분단의 장기화와 구조화 속에서 짧은 대화 국면을 몇 차례 가졌으나 대부분의 시기를 적대적 공존 관계로 지내 왔다. 남북은 모두 그동안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념과 체제 중심의 통일을 지향해 왔다. 남북은 대화 국면마다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에 합의하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면, 전쟁과 같은 전면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적대적 대립과 공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매우 불안정하며 일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은 정전체제 아래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의 남북관계에서는 전쟁 공포와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가운데, 막대한 적대적 공존 유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으며, 힘에 의한 평화 추구의 충돌로 안보 딜레마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43]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안정적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교전 중인 적대 국가 간 관계인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남남처럼 제 갈 길을 가는 중립적 공존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적대도 협력도 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식도 평화적 공존 방식일 수 있다. 그런데 남북이 상호 합의를 통해

43) 이무철 외,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서울: 통일연구원, 2022), 325~326쪽.

이러한 중립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모두 공식적으로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상호 주권을 인정하고 국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44] 그렇지만 남한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중립적 공존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협력적(평화적) 공종 방식 추구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완성했다. 북한은 남북이 같은 민족임을 부정하면서 기존 갈등과 대립, 화해와 협력을 반복했던 통일을 지향하는 '1 민족, 2 체제, 2 국가'의 남북관계(국가 간 관계와 특수관계의 작동)를, '2 민족, 2 체제, 2 국가'의 남북관계(특수관계 폐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은 이번 정책의 전환을 통해 논리적으로 김일성 민족과 사회주의 국가의 일체화를 확립했다. 즉, 북한은 우리 민족(김일성 민족)과 우리 국가(북한)가 제일이라는 논리를 완성한 것이다. 동족인 남한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인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통일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대남정책만이 남게 됐다.

나아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해 왔

44) 북한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서해 NLL를 둘러싼 남북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이를 봤을 때,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자강력제일주의, 그리고 국가제일주의를 기존의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우리수령제일주의와 결합시켜 우리(북한) 민족과 인민대중이 건설한 우리 국가(북한)가 최고이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탁월한 수령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북한에서 제기한 제일주의 논리는 모두 수령과 연결된다. 이는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주체사상은 아무리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 해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수령의 지도와 연결되어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수령-당-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족과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지도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대남·통일정책 전환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계승을 바탕으로 선대 수령의 시대와 구별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영도할 김정은 사상의 체계화를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사상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방식으로 당과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뭉치게 하고, 인민대중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지도이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 신설을 비롯해 이번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2026년 개최할 예정인 제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도 개정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인정하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안보와 평화 보장,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립적, 혹은 협력(평화)적 공존의 남북관계를 만들려는 북한식 '평화공존론'을 정립했다. 어떻게 보면 제8차 당대회에서 정립한 '선평화 후통일'의 실현을 위한

선평화 달성의 당면과제를 명확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은 한민족을 부정하는 것의 명분을 최근 윤석열 정부의 동족대결정책과 궁극적으로 역대 남한의 보수는 물론이고 민주 정부의 흡수통일 추구에서 찾고 있다. 이에 강 대 강, 정면 승부의 원칙에 따라 우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의 '식민지 속국'에 불과한 남한의 기도를 무력화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한민족을 부정함에 따라 향후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북한이 의도하는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한다고 해도 통일 추구의 명분 가운데 하나인 동족이라는 요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조국통일노선의 정당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 논의가 가능한 시기가 오면,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완성을 위한 국가 간의 통합 차원에서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통일 논의가 가능한 시기는 북한 입장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과업으로 제기한 경제, 문화, 과학 강국 등을 건설함으로써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을 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체제 중심의 통일 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흡수통일 기도라 할 수 있다. 물론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이 다시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부활시켜 우리 국가제일주의 및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과 연결하여 통일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공식화하면서도 남북한의 통일 논의를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은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단의 장기화, 구조화 속에서 남한 사회의 통일의식이 변화하는 것처럼, 북한 사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흐름을 김정은 위원장과 연령대(30~40대)가 비슷한 권력 엘리트와 세대들이 대표함으로써 현재의 정세 속에서 통일문제를 향후 과제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남북관계를 별개의 민족과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일체화를 완성했다. 결국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사회주의 부강조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유리한 대외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교전 중인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우선 유지·관리하고, 나아가 중립적 또는 협력(평화)적인 남북관계로 전환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 개념은 남북관계의 성격에 따라 새롭게 호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당 기간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있어 통일 논의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동질성 회복 차원이든 국가 간의 통합 차원이든 어떤 형태로 논의하고 추진할지는 김정은 시대 이후의 북한 미래 세대의 결정에 맡겼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3월 19일 / 수정: 4월 5일 / 채택: 4월 1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평양: 평양출판사, 1989).

김정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송국현, 『우리 민족끼리』(평양: 평양출판사, 2002).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엄국현,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평양: 평양출판사, 2007).

2) 논문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12.2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48~273쪽.

_____,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우리 국가제일주의," 『조선여성』, 제2호(2018).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 요구," 『조선여성』, 제7호(2018).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조선여성』, 제6호(2018).

편집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자," 『근로자』, 제5호(2018).

3) 신문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의 중요성," 『로동신문』, 2018년 11월 18일.

김성남,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김용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로동신문』, 2019년 1월 20일.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_____,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위대한 전

승 69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22년 7월 27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로동신문』, 2019년 1월 22일.
명주혁,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로동신문』 2019년 1월 22일.
“민족의 슬기와 용맹한 기상이 어린 조선의 국조-참매,”『로동신문』, 2018년 12월 9일.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풍산개(1),”『로동신문』, 2018년 11월 25일.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풍산개(2),”『로동신문』, 2018년 12월 2일.
“민족이 억센 기상의 국수 소나무(1),”『로동신문』, 2018년 11월 11일.
“민족이 억센 기상의 국수 소나무(2),”『로동신문』, 2018년 11월 18일.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조선의 국화-목란꽃,”『로동신문』, 2018년 12월 23일.
“밝고 아름다우면서도 뜻이 깊은 국장,”『로동신문』 2019년 1월 26일.
“사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자,”『로동신문』, 2019년 1월 17일.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로동신문』, 2019년 1월 21일.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세상에 자랑높은 우리의 국어,”『로동신문』 2019년 2월 4일.
“송고한 조국애를 깊이 심어주는 ≪애국가≫,”『로동신문』, 2019년 2월 2일.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최후승리 앞당겨오리,”『로동신문』, 2019년 1월 16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승화발전,”『민주조선』, 2019년 3월 26일.
“우리의 국기,”『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우리의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동신문』 2019년 1월 23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인민이 온넋으로 받드는 강국의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로동신문』, 2022년 9월 7일.
유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떨치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로동신문』, 2019년 1월 18일.
“정론,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나가자,”『로동신문』, 2017년 11월 20일.

3) 기타 자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1.16.
김여정 담화,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22.8.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31일.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9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이무철 외,『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서울: 통일연구원, 2022).
이상우,『함께 사는 통일』(서울: 나남, 1995).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북한 지식 사전』(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2) 논문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2019), 309~345쪽.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2021), 139~177쪽.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7월호, 30~38쪽.
_____,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2호(2021), 161~188쪽.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8~38쪽.

3) 기타 자료
홍민 외,『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KINU Insight 2021 No.1), 통일연구원, 2021.2.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National Unification

Lee, Moo Ch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nd features of North Korea's policy transformation that declare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s relations between two belligerent countries and that North Korea will not discuss unification with a South Korea that is pursuing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by absorp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ourse of 'Our State-First Principle'. First, in this paper I explain the logic and intention of Our State-First Principle, examining the background, main contents, and the systematization process of the principle. Based on this examination, I argue that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during the era of the Our State-First Principle(i.e., Kim Jong Un's era) completes the integration of the Kim Il Sung nation and the socialist state, and establishes the North Korean style 'peaceful coexistence' by defin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relations between states rather than the special relations

within a nation. Through transformation of its South Korea policy, North Korea has completed discourse of the principle arguing for integration of the nation and the state, and finished the systematization of 'Kim Jong Un Thought'.

Keywords: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national unification, Our State-First Principle, Our Nation-First Principle, peaceful coexistence, Kim Jong Un Thought